

【논 문】

로베 데 베가의 『라 아르카디아』에 나타난 마법

추 인 숙
(부산외대 강사)

I. 들어가는 말

Sannazaro의 『아르카디아Arcadia』 9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실의에 빠진 목동 Clónico가 Enareto라는 마법사를 찾아가 그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법사 Enareto는 보름달이 뜨는 밤을 기다려 Clónico를 인적 드문, 아주 깊은 계곡으로 데리고 가 자신이 제단을 차리는 동안 Clónico에게는 강물에 아홉 번 몸을 담그라고 시킨다. 그런 다음엔 향이 피어오르는 제단을 일곱 번 돌게 한다. 이제 마법사 Enareto는 어둠의 신들을 불러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최첨단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법사 Enareto의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이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Clónico에게는 분명 신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구원이었을 것이다. Virgilio의 *Bucólicas*로 거슬러 올라가는¹⁾ 이 마법

1) 목가풍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마법적 요소의 기원을 찾으려면 우리들은 적어도 Virgilio의 *Bucólicas*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작품에는 자연과 교감

적 요소는 언젠가부터 목가 소설에 꼭 있어야 하는 소재로 되어버렸다. 스페인 문학사상 최초의 목가 소설인 Jorge de Montemayor의 *La Diana*에도 Felicia라는 마법사가 등장하여 마법의 물로 목동들의 상사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Luis Gálvez de Montalvo의 *El pastor de Filida*에도 젊은 주인공에게 앞으로 알아날 불길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마법사 Sincero가 등장한다. 이들 마법사들은 예외 없이 목동들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발휘한다. 이는 자칫하면 목동들의 단순한 사랑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목가 소설에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면서 목동과 마법사의 만남에 대한 필연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라 아르카디아 *La Arcadia*』는 로페 데 베가가 1598년에 발표한 목가 소설이다. 이 소설 속의 두 주인공 Anfriso와 Belisarda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다. 그러나 Belisarda를 사랑하는 또 다른 목동 Galafrón의 모함으로 Anfriso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잠시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녀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목동에게 그녀가 부모님을 따라 Cilene라는 곳으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Anfriso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날 결심을 한다. 기쁨의 해후를 한 Belisarda와 Anfriso. 그러나 행복도 잠시 뿐, Anfriso는 주위 사람들의 쭈군거림이 두렵다며 이제 떠나달라는 Belisarda의 부탁을 듣게 되고 슬픈 마음에 죽을 결심을 하고 이탈리아로 향한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좌절 속에 울고 있는 젊은 목동 앞에 마법사 Dardanio가 나타나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이야기하며 Anfriso를 위로한다. Belisarda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Anfriso의 청에 두 사람은 하늘을 날아 그녀가 있는 Cilene까지 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본

을 나누며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즐기는 목동들이 나온다. *Bucólica* 8장에 나오는 Alfesibeo 역시 그런 인물들 중 하나이다. 그의 노래는 분명 인간의 소리지만 주위의 나무와 동물들에게는 마법의 힘을 가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Francisco López Estrada, *Los libros de pastores en la literatura española*, Madrid, Gredos, 1974, pp.79-81.)

것은 Belisarda가 Olimpio라는 목동에게 선물을 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장면이다. 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Anfriso는 그녀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으로 마음에도 없는 다른 목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Belisarda 역시 분한 마음에 Salicio라는 목동에게로 떠나가 버린다. 슬프게 끝나버린 사랑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Anfriso는 결국에는 마법사 Polinesta²⁾를 찾는다.

『라 아르카디아』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다른 목가 소설에서처럼 마법사, Dardanio와 Polinesta가 등장하고, 이들은 마법사로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주인공 Anfriso의 앞날을 밝게도, 또 어둡게도 하면서 긴장감과 함께 재미를 더해준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주인공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II. 『라 아르카디아』에 나타난 마법적 요소들

II.1. 마법사 Dardanio의 동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구슬프게 울고 있는 Anfriso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나 그를 위로한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라고, Dardanio라 불리는 이 마법사는 Anfriso에게 자신은 세상의 이치를 깨쳐 자연을 바라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2) Polinesta는 작품의 많은 곳에서 sabia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또 마법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 Lope de Vega, *La Arcadia*, edición de Edwin S. Morby, Madrid, Castalia, p.353 y p.389.) Dardanio가 거의 전적으로 마법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Polinesta는 sabia와 마법사의 두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녀를 sabia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마법사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의도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는 앞으로 그녀를 마법사로 칭하겠다.

라 소개한다:

Porque yo soy aquel gran médico Dardanio, famoso y conocido en todo aquello que el sol alumbra, y temido y respetado en lo que nunca ha visto; porque yo tengo fuerza sobre los elementos, templando el fuego, sujetando el aire, humillando la mar y allanando la tierra. Hago domésticas a mi voz las más rebeldes víboras y sierpes de estas horribles cuevas, detengo el rauda curso de estos sonoros ríos, y hasta las negras furias del Cocito hago temblar con la fuerza de mis caracteres y rombos, y al son de mis conjuros haber miedo y obedecerme.³⁾

Sannazaro의 『아르카디아 Arcadia』에 나오는 마법사 Enareto 역시 이와 유사한 인물이다. 그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그 숨겨진 힘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 언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거두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새들의 언어도 이해한다. 그뿐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풀 한 포기로 마르게 할 수도 있으며 바다의 풍랑과 천둥을 잠재울 수 있는 주문도 알고 있다.⁴⁾ 마법은 분명 하나의 기적과도 같아 보인다. 이처럼 순리에 맞게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에 그의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법이며 현실세계에서의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마법사이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어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는 철학자로서까지 여겨졌던 마법사들. 목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들 마법사들은 Gaspar Gil Polo의 늙은 마법사 Felicia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sapientísima처럼 모두들 현자로 통한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자연의

3) Lope de Vega, *La Arcadia*, edición de Edwin S. Morby, Madrid, Castalia, 1975, p.222.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만을 표시한다.

4) Jacopo Sannazaro, *Arcadia*, edición de Francesco Tateo, Madrid, Cátedra, 1993, pp.149-154.

비밀을 알고 있어 자연을 부릴 줄 알며 또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응용할 줄 안다.

자신을 따라서 그의 거처인 동굴로 온 Anfriso에게 마법사 Dardanio는 흰 대리석의 조각상들로 가득찬 방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Anfriso는 로마제국의 시조인 레모(Remo)와 로물로(Rómulo)형제를 보게 되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Aníbal) 장군, 스페인의 엘 시드(El Cid)장군, 영국의 아더왕(Arturo), 프랑스의 샤를대제(Carlomagno),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Cleopatra)를 만난다. 뿐만 아니라 아라곤 왕국의 돈 하이메(don Jaime)왕, 페르난도(Fernando)와 이사벨(Isabel) 카톨릭왕 부처(夫妻), 까를로스(Carlos) 5세, 펠리페(Felipe) 1세도 보게 된다. 아무런 준비와 특별한 기대 없이 마법사 Dardanio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온 Anfriso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눈요기감을 보고 잠시 슬픈 마음을 잊는다.

우리들은 Jorge de Montemayor의 *La Diana*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음을 안다. 마법사 Felicia는 자신의 신전을 찾은 목동들을 위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장군들과 정결을 지킨 여인들의 象들이 모셔져 있는 방으로 그들을 이끈다. 물론 여기에는 마법사 Felicia의 현명한 계산이 숨어 있다. 그때까지 슬픔으로 가득차 있던 목동들이 엘 시드(El Cid)장군과 한니발(Aníbal)장군을 보면서 잠시이긴 하지만 다시 웃음을 찾기 때문이다.

마법사 Dardanio와 Polinesta 역시 Anfriso에게서 과거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마법사 Dardanio는 Anfriso에게 자신의 동굴 속에 고이 모셔둔 옛 사람들의 象들을 감상하게 함으로써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게 만들고 마법사 Polinesta는 Anfriso를 중세시대 대학의 강의실로 데리고 가 그가 모르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게 함으로써 목녀 Belisarda를 잊게 만든다. 이처럼 눈요기감으로 또는 흥미로운 오락거리로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정신을 딴 데로 돌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Marsilio Ficino의 방법이 목가 소설에서 이들 마법사들에

의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본다. Marsilio Ficino는 말한다. 사랑 때문에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시간’이라는 해결사가 있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눈요기감같은 오락거리를 제공한 다음 마음을 딴 곳으로 돌려 슬픔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II.2. 마법사 Dardanio의 주문과 점성술

가장 원하는 소원 한가지를 들어주겠다는 마법사 Dardanio의 말에 Anfriso는 Cilene에 있는 Belisarda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Anfriso의 이 티무니없는 청을 듣고 Dardanio는 어둠의 신을 불러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P]ríncipe de las tinieblas, señor de la escura noche del sueño y de los agujeros tristes; por la fuerza de los caracteres que sobre esta arena con mi dedo escribo, de las hierbas que sobre estos cercos pongo y de las sangres diversas que al viento esparzo, te apremio y conjuro...(p.247)

그런 다음 마법사 Dardanio는 동굴의 모래 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十二宮을 표시한다. 특히 Bonus Demon, 금성(Venus) 그리고 태양(Sol)이 위치한 곳에는 삼나무, 향나무, 소나무 그리고 바나나의 잎들을 놓는다. 조금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동굴 입구로부터 들어온 바람이 Dardanio와 Anfriso를 싣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마법은 앞서 우리들이 말한 것처럼 자연의 놀라운 힘을 다스려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이나 기계 등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베이컨(Francis Bacon)이 말한 대로 때로는 어둠의 신이나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악마적인 예식을 의미하기도 한다.⁵⁾ 우리들은 마

5) Según Francis Bacon, la magia significa ambiguamente, unas veces, temas religiosos, es decir, cultos diabólicos como la invocación de los

법사 Dardanio를 통해서 그 예를 보고 있다. 그의 주문은 어둠의 신을 불러내어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의 예식인 것이다. 이 마법의 주문으로 Anfriso는 하늘을 날아 Belisarda가 있는 Cilene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Dardanio가 그린 사각형과 十二宮의 Bonus Demon, 금성(Venus) 그리고 태양(Sol)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가. 사각형은 고대부터 점성가들이 天宮圖를 펼쳐 별점을 칠 때 쓰였던 도형이다. 여기에 Dardanio는 천상을 상징한다는 十二宮중에서도 특히 세 개의 運星-Bonus Demon, 금성(Venus), 태양(Sol)-을 언급하는데 Marsilio Ficino에 의하면 인간에게 유익한 세 개의 運星이 있으니 금성(Venus), 태양(Sol) 그리고 목성(Júpiter)이라는 것이다. Bonus Demon은 마법사 Dardanio에게 있어서는 곧 자신의 아버지의 별인 목성(Júpiter)을 상징하니⁶⁾ Marsilio Ficino가 말한 세 개의 運星이 여기에 다 모인 셈이다.

그리고 이 Bonus Demon에 어울리는 식물을 짝지어 주니 그것이 바로 바나나 잎이다. 이 바나나 잎은 Dardanio의 수호신인 Júpiter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앞서 나온 향나무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약초로 Venus에 그리고 소나무는 sol에 각각 속한다. 그렇다면 삼나무는 과연 어떤 비밀을 가졌을까. Cervantes의 *La Galatea*에 나와 Meliso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늙은 제사장 Telesio는 무덤이 있는 삼나무 계곡으로 목동들을 이끈다. 거기서 그는 삼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장례

espíritus y potencias de las tinieblas, fuerzas ocultas que pertenecen al mundo elemental, mientras que otras veces indica tan sólo la parte práctica de la ciencia natural, el dominio sobre las fuerzas de la naturaleza e, incluso, el descubrimiento de medicamentos y la construcción de máquinas. (Eugenio Garin, *Medioevo y Renacimiento*, Madrid, Taurus, 1981, p.131.)

- 6) Frederick A. De Armas는 마법사 Dardanio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Dardanus에서 왔다고 한다. Júpiter와 엘렉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Dardanus는 Dardania 왕국의 시조이며 트로이 왕들의 선조이다. (Frederick A. De Armas, "Lope de Vega and Hermetic tradition: The case of Dardanio en *La Arcadia*", *Revista Canadiense de Estudios Hispánicos*, 7(1983), p.350.)

식을 진행한다. 이렇듯이 삼나무는 죽은 자들을 위한 나무로, 지옥의 신 Plutón에게 바쳐진 나무이기도 하다. Dardanio가 외쳤던 주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둠의 신을 깨우기 위해 마법사 Dardanio가 외운 주문은 바로 지옥의 신 Plutón에게 바쳐진 것이다.

마법사 Dardanio가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하늘의 열 두 개의 별자리인 十二宮을 표시한 것은 분명 그의 점성술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마법사에게 점성술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중세시대 훨씬 이전부터 서로에게 친근한 동반자로 여겨졌다.⁷⁾ 그래서 마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점성술이 거론되어지는 것이 당연했으며 뛰어난 마법사들은 또한 뛰어난 점성술사이기도 했다. 이들 점성술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의 별을 가지는데 이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별들의 움직임을 읽어 두 젊은 목동의 사랑문제를 해결해 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Gaspar Gil Polo의 *Diana enamorada*에 나오는 늙은 마법사 Felicia이다.⁸⁾

이처럼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연물까지도 주관하는 점성술은 고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천상계의 비밀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으로 여겨 과학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16, 17세기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⁹⁾ 그래서 로뎬 데 베가 시대의 사람들은

7) Eugenio Garin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Cuando se dice <<magia>> se abarca también la astrología y, en parte, la alquimia, porque están indisolublemente relacionadas por la idea de que la obra mágica carece de efectividad si no se la realiza en la hora oportuna, es decir, en *punto* determinado de la situación celeste.” (Eugenio Garin, *ob. cit.*, p.130.)

8) “[C]on poderosas hierbas y palabras y por muchos otros medios, procuró que Sireno comenzase a tener afición a Diana. Y no fue gran maravilla, porque si los influjos de las celestes estrellas tanto a ello lo inclinaban, que pareció no ser nacido Sireno sino para Diana, no Diana sino para Sireno.” (Gaspar Gil Polo, *Diana enamorada*, edición de Francisco López Estrada, Madrid, Castalia, 1987, p.256.)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러한 점성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로베 데 베가의 『라 아르카디아』 곳곳에는 점성술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작품의 전체 구조가 十二宮에 기초를 두고 짜여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장의 특성을 十二宮의 각 별자리의 특성과 연결 지어 이야기의 전개를 꾀했다. Belisarda와 Anfriso의 사랑이 시작되는 이 소설의 제 1장은 十二宮의 시작인 백양궁(Aries)때이다¹⁰⁾. 이 때는 겨울의 찬 기운에 죽어 있었던 만물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봄이니 두 젊은 목동의 사랑이 시작되는 때와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별 문제없이 금우궁(Tauro)을 거치면서 제 2장까지 순조롭다. 그러나 마법사 Dardanio가 출현하면서 이 두 연인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제 3장은 쌍자궁(Géminis)에서 거해궁(Cáncer)으로 이동하는 때와 일치한다.¹¹⁾ 이 시기에 태양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작품에서도 180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을 잃고 마법사 Polinesta를 찾아 그녀의 도움으로 중세대학의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성(El palacio de las siete artes liberales)과 깨달음의 신전(El templo del Desengaño)을 거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Anfriso. 이러한 그의 성숙의 과정은 처녀궁(Virgo)과 천칭궁(Libra)때와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로베 데 베가의 『라 아르카디아』는 원숙의 계절인 가을에서 끝이 난다.

9) 『라 아르카디아』 1장에 나오는 목동 Celso의 노래는 점성술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En estas, pues, cuando Venus,/ Marte y sol se miraron,/ benignos a mis desdichas/ y a mis venturas contrarios/ nació pastor”(p.120.)

10) “[E]n la sazón que de los fríos peces salía y con alegre rostro miraba el vellocino de Colcos...”(p.71) Anfriso의 말에서 이 소설의 시작이 “백양궁 Aries” 때임이 확실해 진다: “[Y] con más causa le pudiera hacer signo del cielo que al Aries sobre quien ahora el sol nos alumbra.”(p.77)

11) “Y así juntos, en poniendo los pies fuera de la cueva se sintieron levantar en alto del manso viento, tanto que cerca de las primeras nubes parecían el signo del abrasado Géminis”(p.249)

II.3. 변신(las transformaciones)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Belisarda가 있는 Cilene까지 무사히 도착한 Anfriso와 마법사 Dardanio는 어느 인적 드문 계곡을 찾는다. 거기서 Dardanio는 마법사로서, 그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Anfriso를 기력이 쇠한 늙은이로 바꾸어 놓고 자신은 어린 나귀로 변한다:

Dardanio transformó a Anfriso en un viejo decrepito, las manos arrugadas, macilento el rostro y entrecana la barba y el cabello; y él tomó la forma de un flaco jumentillo, sobre que le mandó subir, y a la manera de un leñador rústico...(p.251)

목가 소설들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마법사 Dardanio는 Anfriso를 주름투성이의 늙은 팻감장수로 만들어 놓았지만 다른 마법사들은 사람을 동물이나 식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이렇게 마법사 Dardanio처럼 마음만 먹으면 몸을 바꾸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들은 바다의 신 Proteo에게서 볼 수 있으며 가깝게는 Jorge de Montemayor의 *La Diana*에 나오는 사악한 마법사 Alfeo에게서 찾을 수 있다. 목녀 Belisa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마법사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악마의 힘을 빌려 두 사람의 모습을 취한다. Arsileo와 Arsenio로 화한 마법사 Alfeo는 일부러 그믐날 밤을 택해 Belisa앞에 나타나 Arsenio가 Arsileo를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를 지켜보던 Belisa는 목동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 슬픔의 나날을 보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모습을 바꾸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보통 나 아닌 다른 것이 되고 싶어한다. 이런 심리가 마법사 Dardanio에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이로써 마법사 Dardanio의 변신은 작품 속에서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마법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Anfriso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이런 마법적 행위가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독자들에게는 재미를 준

다는 것이다.

II.4. Conocedor de plantas

Luis S. Granjel에 따르면 마법사들은 약초나 풀의 특성을 잘 알아 적절한 때에 활용할 줄 안다.¹²⁾ 유명한 마법사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수많은 약초들의 이름과 그 쓰임새에 통달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거처는 어쩔 수 없이 식물원이나 실험실 같아 보일 수밖에 없다:

Porque la variedad de cadáveres de animales, de ponzoñosas hierbas, de gomas aromáticas, de piedras virtuosas, de confecciones médicas, ni se podían contar ni en largo espacio de escritura comprenderse, porque sólo se pudieran hallar en el filosófico seso de un alquimista.(p.357)

마법사 Polinesta는 식물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동물에 관한 지식과 연금술에까지 조예가 깊은 유능한 마법사이다. 코끼리의 발톱은 간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험이 있고 여우의 비곗살은 귀의 통증을 없애는 데 좋다든지 독수리의 뇌를 꿀과 함께 먹으면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등 알아두면 소용이 될 많은 치료요법을 알고 있다. 또 귀금속이 가지는 신비한 힘도 알고 있으니 루비는 건강을 계속 유지시키며 흑사병을 예방해 주고 사파이어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며 금은 마음에 용기를 북돋우어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풀이나 약초에 숨은 효능을 알아 그 진가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중세부터이다. *La Celestina*에 나오는 노파 Celestina는 이 분야에 대해

12) “Los magos también son buenos conocedores de las propiedades terapéuticas de muy varios productos naturales y saben utilizarlos con habilidad. Es decir, son conocedores de hierbas y de su preparación en disoluciones alcohólicas.” (Luis S. Granjel, *El ejercicio médico*, Salamanca, Universidad de Salamanca, 1974, p.227.)

남다른 재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가 사는 집의 천장은 주렁주렁 매달린 수많은 약초와 그 뿌리들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목가 소설에서는 이 약초나 풀이 동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마법사에게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데 꼭 있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동·식물의 비밀을 알아 이를 활용한 마법사들이 목동들의 눈에는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 보였다. 마법사들은 동·식물에 통달한 그들의 모습을 목동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마법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마법사들은 알고 있다. 어떤 약초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 어떤 약초는 반대로 사랑에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병에는 이 동물의 간이 좋고 또 저런 병에는 저 동물의 뼈가 소용이 된다는 것을. 르네상스 시대에 식물학이나 동물학에 관한 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지식들을 우리들은 로페 데 베가의 『라 아르카디아』에서 만날 수 있다.

II.5. “De suertes” 책과 수상학(la quiromancia)

Cardenio라는 목동이 마법사 Polinesta의 동굴에 들러 그녀로부터 무언가를 건네 받는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Anfriso와 다른 목동들이 궁금해하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마법사 Polinesta는 소일하면서 즐기기에 재미난 책이라면서 그들에게 “De suertes”라는 책을 보여준다. 주사위를 사용해 자신의 행운을 점칠 때 꼭 있어야 하는 책으로 이 놀이는 로페 데 베가 시대 때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다. 마법사 Polinesta가 이 놀이 방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목동들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없어도 될 군더더기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로페 데 베가의 점성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책 “De suertes”에는 백양궁(Aries)에서 시작하여 쌍어궁(Piscis)으로 끝나는 十二宮이 그려져 있고 이들 각 자리는 각각 일곱 개의 運星

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백양궁(Aries)은 인생운을 주관하고 금우궁(Tauro)은 재산운을, 쌍자궁(Géminis)은 친척운을, 거해궁(Cáncer)은 상속운을, 사자궁(León)은 자식운을, 처녀궁(Virgo)은 질병운을 주관한다. 그리고 천칭궁(Libra)은 결혼운을 주관하고 천갈궁(escorpión)은 죽음운을, 인마궁(Sagitario)은 여행운을, 마갈궁(Capricornio)은 예술운을, 보병궁(Acuario)은 친구운을, 쌍어궁(Piscis)은 불행을 주관한다. 이들 각각의 十二宮은 다시 일곱 개의 運星을 가지는데 토성(Saturno)은 일복을 타고나며, 목성(Júpiter)은 번창할 기운을 화성(Marte)은 힘을, 금성(Venus)은 順産과 함께 예쁜 자식들을 가질 운이다. 그리고 수성(Mercurio)은 약하고 말많은 사내가 날 운이고, 달(Luna)은 머리가 큰 사내가 태어나 시름시름 살게 될 운이다.¹³⁾

자신의 결혼운을 알고 싶어하는 Anfriso에게 마법사 Polinesta는 결혼운을 주관하는 천칭궁(Libra)을 가리키며 그 안에 있는 일곱 개의 運星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 Anfriso가 던진 주사위가 금성(Venus)에 가서 떨어지자 마법사 Polinesta는 그 의미를 설명한다. 덕이 많고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운이라고. 이처럼 “*De Suertes*”는 귀족들이 그들의 살롱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들의 미래운을 점치던 놀이로 『라 아르까디아』에서는 마법사 Polinesta가 목동들의 흥미를 돋구면서 동시에 Anfriso에겐 그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줄 목적으로 잠시 소개된다.

또 『라 아르까디아』에는 수상학(La quiromancia)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의 신체는 작은 우주이다. 이 소우주인 인간 신체의 각 부분이 運星에 의해 다스려지는데 Agrippa의 설명에 따르면¹⁴⁾ 태양(Sol)은 이 중 뇌와 심장, 허벅지, 척추, 오른쪽 눈과 영혼을, 수성(Mercurio)은 혀, 입, 손, 다리, 신경을, 토성은 간, 위, 오른쪽 귀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또 목성(Júpiter)은 간, 배, 배꼽, 가슴, 피, 팔, 오른손을, 화성(Marte)은 정

13) Lope de Vega, *ob. cit.*, p.397.

14) Pilar Alonso Palomar, *De un universo encantado a un universo reencantado*, Valladolid, Grammalea, 1994, p.89.

맥, 신장, 쓸개, 콧구멍을, 금성(Venus)은 음경, 자궁, 살, 지방, 머리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각 신체 부위는 그 부위를 다스리는 運星의 끊임없는 통제를 받는데 인간의 감정까지도 이 運星에 의해 돌아간다고 Agrippa는 말한다.

그러나 마법사 Polinesta는 인간에게 중요한 지체들은 그 사람의 손바닥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상학(La quiromancia)이다. 이 수상학(La quiromancia)은 각 개인의 심리상태나 마음을 아는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중세시대에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바닥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읽으니 점치는 기술로써도 이용되었다.¹⁵⁾ 마법사 Polinesta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Pero advierte que los miembros principales que rigen y gobiernan el ser de hombre tienen su demostración en la palma de la mano, en esta forma: el corazón prodece la línea de la vida, que muestra si ha de ser breve o larga, y cuáles sus enfermedades y infortunios. Está entre el dedo grueso y el índice el hígado, que es principio de criar y restaurar el cuerpo; hace con la suya y la del corazón un ángulo, y llega al término de la mano, la cual procede de la cabeza; forma con las referidas un triángulo. Llamóse línea capital. La cuarta, que procede de toda su virtud, y nace entre el dedo mayor y el índice, en la mensal, llamada así por aquella mesa y espacio que allí forma; las demás no son de consideración respecto de éstas.(p.403.)

마법사 Polinesta의 설명이 끝나자 목동들은 사람 손바닥에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음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II.6. 중세대학의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성(el palacio de las siete artes liberales)과 깨달음의 신전(el templo del Desengaño)

자신의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Belisarda를 제발

15) *Ibíd.*, p.89.

잊게 해 달라는 Anfriso의 청을 듣고 마법사 Polinesta는 이렇게 말한다:

Aquí es menester que te desnudes de cuanto hasta ahora ha vestido tu cuerpo; de lo que te has de vestir no ha de haberte jamás servido; esto y tu cuerpo he de bañar en diversas aguas, y con varios perfumes quitar de ti aquel olor de la imaginación antigua... (p.358.)

마법사 Polinesta가 Anfriso를 고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여느 마법사들의 주술적 방법, 예를 들어 죽은 이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돌게 한다거나 주문을 건 다음 그럴듯한 말로 구슬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 젊은 청년에게 먹히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늙은 마법사 Polinesta. 그녀의 치료법은 먼저 Anfriso에게서 과거의 기억과 생각들을 없앤 다음 Marsilio Ficino가 말한 방법처럼 그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Y] cuando dentro de algún tiempo estés en los principios de tu convalecencia, te llevaré al templo del ejercicio y artes liberales, cuya honesta ocupación divierta de manera tu fatigada memoria que no te acuerdes si en tu vida viste a Belisarda.”(p.359.) 이런 점에서 마법사 Polinesta는 마법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에 더 가깝다.¹⁶⁾

목가 소설에는 역사의 유명한 장군들이나 황제들 또는 정결을 지킨 여인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象을 모셔놓은 방들이 마법사들에 의해 묵동

16) Barbara Mujica역시 마법사 Polinesta를 두고 마법사라기보다는 교사같다고 말한다. 마법이 아닌 오락으로 Anfriso를 고친 마법사 Polinesta가 다른 마법사들과 다르게 보였음이 틀림없다: “Unlike Enareto in Sannazaro’s *Arcadia* and Felicia in *Los siete libros de la Diana* and *Diana enamorada*, Polinesta is not a sorceress, but a teacher. She does not cure by magic but by distraction. She does not recur to magic potions, for she knows that the only way to make Anfriso forget Belisarda is to make him want to forget her.” (Barbara Mujica, *ob. cit.*, p.44.)

들에게 소개된다. Jorge de Montemayor의 *La Diana*에서 마법사 Felicia가 그렇고 Luis Gálvez de Montalvo의 *El Pastor de Filida*에서 마법사 Sincero가 그렇다. 또 목가 소설에서 신전의 내부를 묘사하는 부분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주 보이는 것이 목동들의 수호신인 Pan의 신전이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데 바로 그 곳을 찾는, 상사병에 걸린 목동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법사 Polinesta 역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Anfriso를 중세대학의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성(el palacio de las siete artes liberales)과 깨달음의 신전(el templo del Desengaño)으로 데려 간다.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학, 음악, 점성술을 가르치는 일곱 개의 강의실이 있는 성으로 안내받는 Anfriso. 그 곳에서 그가 본 것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문법에서부터 점성술까지 배우게 되는 Anfriso. 그에게 마법사 Polinesta는 이번에는 시의 성(palacio de la Poesía)를 방문하고 나오라고 한다. 아름다운 옷을 곱게 차려 입은 부인이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시의 성(palacio de la Poesía)을 보고 나온 그에게 성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법사 Polinesta는 묻는다. 그 동안 Belisarda가 생각났냐고. 마법사 Polinesta의 질문에 Anfriso는 부끄러움으로 간신히 대답한다. 그녀의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다고. 이제 Anfriso에게 남은 일은 깨달음의 신전(el templo del Desengaño)을 방문하는 일이다:

Estaba de blanco mármol la figura del Desengaño, a cuyos pies estaba la Hermosura, la Vanagloria, Amor, la Ociosidad, la Esperanza, la Pretensión, la Privanza, el Deseo, el Servicio, la Confianza de sí mismo, la Ignorancia, la Codicia, la Presunción, la Osadía, el Pensamiento, la Juventud y la Costumbre, que es la más difícil cosa de ser desengañada.(p.442.)

깨달음의 신전을 나온 Anfriso가 자신의 예전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그에게서 사랑에 분노

하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법사 Dardanio의 마법으로 Anfriso에서 늙은 뿔감장수로 변한 신체적인 변화를 떠올린다면 이는 마법사 Polinesta가 보여 주는 또 다른 마법이다. Anfriso의 이 내적 변화의 비밀은 주문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Anfriso가 방문한 일곱 개의 강의실이 있는 성과 깨달음의 신전(el templo del Desengaño)에 있다.

III. 끝맺는 말

총 5장으로 구성된 로베 데 베가의 『라 아르카디아』에서 마법사 Dardanio와 Anfriso와의 만남은 이 작품의 중심부분인 3장에 위치하고¹⁷⁾ 마법사 Polinesta와의 만남은 마지막 장인 5장에 위치한다. 이들 마법사들의 이와 같은 배치가 Frederick A. De Armas도 지적한 것처럼 작가의 꼼꼼한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인공 Anfriso의 사랑은 마법사 Dardanio와의 만남을 통해 180도의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마법사 Dardanio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아 Belisarda가 있는 Cilene에 도착한 Anfriso가 본 것은 Belisarda가 다른 목동에게 선물

17) 마법사 Dardanio의 에피소드가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제 3장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Frederick A. De Armas는 주인공 Anfriso의 목녀 Belisarda를 향해 급작스럽게 변해버린 태도와 연관을 지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The placement of this episode at the very heart of the work is no accident. It represents the pivot on which the action turns; it is the peripety of the romance. Before Dardanio's magical flight, the fulfillment of love was still possible for Anfriso and Belisarda since it was only hindered by outside forces. Afterwards, the obstacles are not only exterior but also interior since it is Anfriso's jealousy and lack of trust that lead to the final separation." (Frederick A. De Armas, *Lope de Vega and the Hermetic Tradition: The Case of Dardanio in La Arcadia*, *Revista Canadiense de Estudios Hispánicos*, 7(1983), pp.349-350.)

을 건네주는 장면. 이 순간부터 Anfriso의 마음 속 깊숙이 숨어 있었던 불신의 씨앗이 도드라지게 되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엔 이들의 사랑이 슬프게 끝나고 만다. Anfriso는 마법사 Dardanio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Belisarda와의 사랑을 잃게 된 것이다. 마법사 Dardanio가 Anfriso를 위해 보여준 갖가지 마법들이 결국엔 Anfriso의 마음에서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법사 Dardanio의 출현이 새롭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Anfriso가 마법사 Polinesta를 만나 새롭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다. 마법사 Dardanio는 Anfriso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질투의 감정을 유발시켜 그의 사랑이 깨어지게 했으니 분명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다른 한편 사랑으로 상처받은 Anfriso가 마법사 Polinesta를 찾도록 계기를 만들어 준 인물이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마법사 Polinesta를 만난 Anfriso가 자신의 옛사랑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Jorge de Montemayor의 *La Diana*에서 로페 데 베가의 『라 아르카디아』를 거쳐 Gabriel de Corral의 *La Cintia de Aranjuez*에 이르기까지 목가 소설 속에는 마법사들이 등장하고 목동들은 항상 그들을 찾는다. 젊은 남녀 목동들이 있는 곳에서 마법사들을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Jorge de Montemayor의 *La Diana*에서 목녀 Diana가 이제는 결혼을 해 남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두 목동 Sireno와 Silvano를 마법사 Felicia가 마법의 물로 치료를 한 것처럼 이들 목동들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신통하다는 마법사들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법사들은 목동들의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품 속에서 필요하게 되었고 출현의 정당성까지 얻고 있다. 마법사 Dardanio와 Polinesta처럼 말이다.

참고문헌

- Alonso, Álvaro, “La novela pastoril y la magia”, *Anthropos*(Barcelona), núms. 154-155 (1994), pp.111-114.
- Alonso Palomar, Pilar, *De un universo encantado a un universo reencantado*, Valladolid, Grammalea, 1994.
- Armas, Frederick A. de, “Lope de Vega and the Hermetic Tradition: The case of Dardanio in *La Arcadia*”, *Revista Canadiense de Estudios Hispánicos*, 7 (1983), pp.345-362.
- Avalle-Arce, Juan Bautista, *La novela pastoril española*, 2.^a ed., Madrid, Istmo, 1974.
- Blasco, Javier, “Entre la magia del amor y la magia de la memoria. Hermetismo y literatura en *La Arcadia*, de Lope”, *Edad de Oro*, IX (1990), pp.19-37.
- Garin, Eugenio, *Medioevo y Renacimiento*, Madrid, Taurus, 1981.
- Halstead, Frank G., “The Attitude of Lope de Vega toward Astrology and Astronomy”, *Hispanic Review*, 7 (1939), pp.205-219.
- López Estrada, Francisco, *Los libros de pastores en la literatura española*, Madrid, Gredos, 1974.
- Millé y Giménez, Juan, “El horóscopo de Lope de Vega”, *Humanidades*, XV (1927), pp.69-96.
- Mujica, Barbara, “The Wizard in the Spanish Pastoral Novel”, en el *Homenaje a Humberto Piñera*, Madrid, Playor, 1979, pp.179-185.
- , “Lope de Vega’s *Arcadia*: A step toward the modern novel”, *Hispanic Journal*, 2 (1981), pp.27-49.
- Osuna, Rafael, *La “Arcadia” de Lope de Vega: Génesis, estructura y originalidad*, Madrid, 1973 (*Boletín de la Real Academia Española*, Anejo XXVI).
- Scudieri Ruggieri, Jole, “Notas a la «Arcadia», de Lope de Vega”,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úms. 161-162 (1963)
pp.577-605.

Vega, Lope de, *La Arcadia*, edición de Edwin S. Morby, Madrid
Castalia. 1975.

【Resumen】

La magia en *La Arcadia* de Lope de Vega

Chu In Suk

En la prosa novena de la *Arcadia* de Sannazaro, el pastor Clónico, víctima de un amor infeliz, decide acudir al mago Enareto en demanda de su ayuda. El mago Enareto le propone varios remedios mágicos. A través de este episodio, Sannazaro abre en su obra una atmósfera de prodigio, que se asocia con el mundo pastoril al menos desde las *Bucólicas* de Virgilio.

La novela pastoril española va avanzando desde su principio relacionado estrechamente con el tema de la magia. En *La Arcadia*, la novela pastoril publicada en 1598 por Lope de Vega, ocurre con este tema de la magia que se da en la pastoril desde *La Diana* de Jorge de Montemayor.

La historia principal de *La Arcadia* es del amor del pastor Anfriso y su amada Belisarda. Para resolver el amor del pastor Anfriso aparecen los dos magos, Dardanio y Polinesta en la obra lado a lado: el mago Dardanio (libro III) y la maga Polinesta (libro V). Como se nos muestran en las novelas pastoriles publicadas anterior a *La Arcadia*, Dardanio y Polinesta también revelan sus poderes sobrenaturales para ayudar al pastor desdichado. Esto ofrece una distracción al lector y una inevitabilidad en el encuentro del pastor y el mago al mismo tiempo.

Ellos que revelan los dos magos de Lope de Vega son los

grandes manipuladores de la maravilla: conjuro, transformaciones, vuelos aéreos, medicamentos, artes adivinatorias, artes de la memoria. Los dos magos nos muestran cómo, a través de sus saberes mágicos, es posible operar efectos maravillosos.